

G I T A L I A N E C U L T U R A L I N S T I T U T E

Massimo Catalani

Exhibition 2004 in Seoul



Italian Cultural Institute



GALERIE PICI

T A L I A N C U L T U R A L I N S T I T U T E

Massimo Catalani

Exhibition 2004 in Seoul

L I F E



Italian Cultural Institute



GALERIE PICI

마시모 카탈라니가 식물, 동물, 꽃, 풍경, 인물들을 담은 다수의 작품들과 함께 서울에 왔다. 모두 사실적인 작품들로, 형식, 색상, 냄새, 촉감과 미감의 구체적인 매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적인 작품들이다. 다수의 작품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 명인할 수 없는 그 실체를 잊어버리고 만 이 우주의 밀도를 파악해내려는 화가의 기분 좋은 욕심을 의미한다. 우리 화가의 작업은 사물을 재생산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형상, 혼합된 재료들과 색상, 그리고 기적적인 정도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다시 관람자의 관심을 끄는 빛의 생명력이 폭발하는 순간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망설임 없이 삶을 열광적으로 환대하는 모습이 모든 작품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기준에 따른 구별이나 각 시대의 철학들이 부여하고자 애썼던 자기성실감의 메커니즘 없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모든 것을 맛보도록 충동이는 응분의 상태를 그대로 놓아두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근원적인 사건이 지니는 가치를 일반적인 사물들과 평범한 일상에 다시 부여할 줄 알았던 이 화가와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 혹은 해방의 의미이다.

마시모 카탈라니는 그의 탐구를 통해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로서 완전히 이탈리아적인 예술가로 자리잡는다. 자연, 풍경 그리고 이탈리아적인 생활의 명상적인 특징에 대한 관심 때문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모든 전통을唤起시키기 때문이다. 카라비지오적인 자연의 고상한 특징들처럼, 본질적으로 전여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는 회화 장르가 융성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마시모 카탈라니는 문화원이 2004년 서울에 초대한 두번째 화가이다. 두 번의 전시회 모두 강 신덕 님 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 피시(PICI)에서 열리게 되었다. 카탈라니의 작품들은 즉석에서 그 의미를 읽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물들의 세계와 환해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과거 이탈리아의 예술에 언제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지만 이탈리아의 현대 예술은 아직 그다지 많이 소개되지 않은 듯이 보이는 한국을 찾는 카탈라니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렇게 광대한 공백을 채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우리는 동물의 모습, 우리 앞에서 꽃 봉우리를 터뜨리는 꽃들의 모습, 매혹적인 분위기를 잠시 동안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풍경, 모든 이들이 경이를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하는 창조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신체. 혹은 그 신체의 일부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술가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전시회를 계획할 수 있게 여러 모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준비 과정과 전시회 개최를 계속 지원해주시고 도움을 준 잇무성 Unita Collezione 의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글을 마치려 한다.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장
루이지노 제킨

Arriva a Seoul Massimo Catalani con il suo carico abbondante di vegetali, animali, fiori, paesaggi, figure umane. Tutti reali, pieni, irresistibilmente presenti, senza equivoci nel loro richiamo alla materialità di forma, colore, odore, sensazioni tattili e gusto. È una profusione che indica l'avidità gioiosa dell'artista di impadronirsi di una consistenza del creato che noi diamo per scontata a tal punto da dimenticarne l'ineffabile realtà. Il lavoro del nostro artista non è tanto quello della riproduzione dell'oggetto quanto quello di ricreare il momento dell'esplosione vitale della forma, dell'impasto materico, del colore e della luce che, in una unicità di carattere miracolistico, si ripropone all'attenzione del visitatore.

Spira su tutto un'accoglienza entusiasta alla vita, senza riserve, dove basta lasciarsi andare al fluire degli umori, spinti dall'impulso frenetico a gustare tutto quanto ci viene offerto senza distinzioni etiche e meccanismi di autoprivazione che le filosofie di tutti i tempi hanno cercato di imporre. È un senso di libertà o di liberazione che ci viene dalla frequentazione di questo artista che ha saputo ridare alle cose comuni e alle banalità quotidiane la valenza dell'evento primordiale.

Massimo Catalani in questa sua ricerca e con questi esiti si qualifica come artista pienamente italiano, non tanto per la sua attenzione alle caratteristiche peculiari della natura, del paesaggio e del prodotto italiani, quanto piuttosto per il richiamo a tutta una tradizione, essenzialmente pittorica, che ha visto il fiorire della pittura di genere con esiti disparati come pure la qualità eccelsa delle nature caravaggesche.

E' il secondo pittore italiano che l'Istituto di Cultura propone a Seoul nel 2004, sempre nella Galleria PICI così efficacemente diretta dalla Signora Kang Shin Duk. I suoi lavori sono di una lettura immediata e ci aiutano a riappacificarci con il mondo delle cose comuni. A lui va il nostro più cordiale benvenuto in questo Paese che ha sempre dimostrato un grande interesse per l'espressione artistica italiana del passato, ma che, forse, conosce ancora molto poco dell'arte contemporanea del nostro Paese. In questo sforzo di colmare una lacuna così vasta, proponiamo oggi un artista che ci dà il gusto di animali che sono tali, di fiori che sbocciano di fronte a noi, di paesaggi che trattengono per un istante l'incanto di atmosfere sublimi, di corpi o parti di essi che si adattano benissimo a far parte di una creazione che si ripropone incessantemente per la meraviglia di tutti. Ringrazio, in chiusura, quanti, in qualsiasi modo, hanno reso possibile questa mostra, soprattutto i colleghi dell'Unita' Collezione de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che costantemente hanno seguito le fasi organizzative e di realizzazione della mostra.

Luigino Zecchin
Direttore dell'Istituto Italiano di Cultura

Massimo Catalani arrives in Seoul with his plentiful load of vegetables, animals, flowers, landscapes, human figures. All of them real, full, irresistibly present, with no ambiguities in their lure of material form, colour, scent, tactile sensations and taste. It is a profusion that indicates the artist's joyful eagerness to take possession of the very texture of the universe that we take for granted: to the extent that in fact we forget its quality of ineffable reality. The work of our artist does not simply deal with reproducing the object as it is, but in fact with capturing that moment of vital explosion of form, matter impasto, colour and light, which is then, in a miracle-like oneness, presented before the visitor's eyes. An enthusiastic, unconditional welcome to life radiates from everything, where we only have to let go to the flowing of moods, only driven by the urging frenzy of enjoying everything is offered to us with none of those ethical distinctions and self-privation that all-time philosophies have tried to impose. The effect that Massimo Catalani's production has on us is a sense of freedom and liberation, as the artist has been able to give back to ordinary things and everyday trivialities the relevance of primeval events.

With his research and achievements Massimo Catalani imposes himself as a thoroughly Italian artist, not only for his attention to the peculiar features of Italian nature, landscape and products, but above all for the reference to a whole painting tradition that, by producing a genre of its own, has created such masterpieces as Caravaggio's still lives.

This is the second Italian painter that the Italian Cultural Institute has presented in Seoul at the Galerie PICI, so skillfully managed by Mrs. Kang Shin Duk, in 2004. His works produce an immediate impact and help us come to terms with the world of ordinary things. To him we address our warmest welcome to this country, which has always shown great interest for the Italian art of the past, but which maybe still knows very little of our country's contemporary art.

It is in the effort of bridging such big gap that today we present an artist that gives us the feel for animals as if they were real: flowers that blossom before our eyes: landscapes that keep for a second the charm of enchanted atmospheres: bodies, or parts of them, that are well suited to form part of a relentless creation offered to everybody's wonder.

I finally thank all those who have in any ways made this exhibition possible, especially the colleagues of the Unità' Collezione Farnesina, who have consistently followed its various organizational phases.

Luigino Zecchin
Director of the Italian Cultural Institute

자연적인 자연

잔루카 마르지아니

자연의 흔으로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기, 생명력 있는 재료의 유기적인 힘을 통해 삶의 단편들을 이야기하기. 마시모 카발라니는 지나칠 정도의 숙고를 통해 박동하는 장면들을 표현함으로써, 한 조각 한 조각이 생생한 현실의 일부분을 그려내는 작품들을 탄생시킨다. 나는 항상 MC의 일상적인 걸음걸이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열정을 발견하고 건축물, 채소, 인간의 육체, 동물, 세계적인 유산의 파편들, 진정으로 너그러움이 느껴지는 정상적인 상태의 단편들을 포착하기 위한 열정적인 경주에 주목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나칠 정도로 신문적이어서 독특하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화판이나 캔버스 위에서 위성으로 인정되는 외적인 시선에 밀착되어 있는 규범도 마찬가지이다. 화가의 열정은 일관된 대화에서, 면접한 신박스를 따라 새어 나오는 사고의 바다에서, 결코 충족된 적이 없는 계획에서, 존재 방식에 자양분을 주는 책임감과 사명감의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서 느껴진다. 그렇지만 그 어디에서보다 작품에서 그 열정을 느낄 수 있다. 무리의 주변으로 들어온 크고 작은 들의 작품들은, 혼을 새김과 그림, 건축과 조각, 분별력과 정신적 이들을 통해 오염된 자연을 납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

MC는 건축으로 악위를 떠고 전문과정을 이수했다. 아마 이것은 회화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화가가 엄격한 분류를 통해 현실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단한 것이 될 것이다. 결국 건축이라는 것은, 형태와 상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재료들(철, 시멘트, 유리, 나무, 돌)을 취해 그것들에 건축적인 참가물을 덧붙여 최종적인 외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철과 철근 콘크리트, 유리는 우리를 에워싼 건물을 대부분을 만들어낸다). MC는 원근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진실의 2차원적인 투사를 계획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기본적인 재료들(흙, 모래, 시멘트, 포출라나)을 사용해 자신의 회화 표면에서 그 메커니즘을 다시 이용한다. 현재 화가는 전문적인 건축가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을 그가 얻은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행운은 도상학적인 구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움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MC는 자연을 제재로 한 건축물에서 카타르시스적인 구성의 Dna를 유동화시키기 위해 정신적인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리니까 우리들의 조형미술에서 MC의 작품에 원형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이 된다. 그것은 시선의 내용, 그림의 변화하는 성질, 코드와 의미 뒤에 숨어 있는 윤리학을 재정의하는 명확하고 건설적인 접근이다. 미학적 차원에서 자율성을 지닌 화가는 현대 외화의 감각주의를 용내내지 않는다. 반대로, 세상에 존재해있는 것에 대한 종류된 순수함, 그와 마찬가지로, 그림 안에 배치된 것의 명료한 순수함에 감지된다. 오늘 날, 폭풍우 속에 있는 것 같은 현대인들의 상황 내에서, 인식 가능한 특징적인 원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모든 화가들이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법적이고 주관적인 사실이 MC를 그다지 기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그는 객관적으로 다른 이들이 밀고 나가지 못했던 공간을 향해 나가는 불도저 역할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탄생된 기억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자. 여기서 느껴지는 근원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자. 다행스럽기도 그것은 적지 않다. MC는 열정을 발산시켰던 여러 해 동안 외화와 문학, 영화와 사진 연구를 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의 영식적인 토양은 사실, 이탈리아적인 풍요로운 기억의 퍼끼기들, 조영예술이라는 장르를 향해 시선을 향기시키는 매끄러운 막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과 통합을 거쳐 우리를 인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악을 만들어낸다. 청조적인 이란한 원악은 풍경, 조상와 죽어 있는 자연과 뒤섞인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보편적인 도상학에 대한 제 3 논리의 영역이 등장하는 게 우연은 아니다. 세 개의 세계가 있다. 이 세계 내에서는 잠르의 문화가 지속적이고 소리 없는 필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인용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직관과 지성으로 이루어진 양식은 정상적인 상태를 중시하는 '방식'의 신물이다.

텍스트의 한 줄 안 줄에 모든 취향에 맞춘 인용구들이 산재해 있는 요약 문을 불편해하기보다는 기억과 현재 사이의 균형들을 만족시키는 몇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자체 없이 카란바지오의 죽은 자연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자. 그는 과일 껌풀의 냄새, 씨앗의 소리, 너무 익은 과일의 한 입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등대이다. 과일과 채소의 혼암은, 자예롭게 그리고 탁월한 타치를 통해, 페데 갈리지아의 보편적인 그림으로 돌아간다. 페데 갈리지아는 평범한 것들의 정직한 아름다움, 야채에 짐재되어 있는 예로디시즘, 인간이라는 유기체 내에서 식물적 유기체를 반영하는 수많은 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17세기 외화를 빛내는 예성이다. 아르침볼도가 클라쥬를 이용해 아이러니를 표현했다거나 규범 안에서 규범을 전복했다고 해서 인급하지 않는다면 그를 불쾌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과일과 채소는 분류할 수 없는 유기적인 원형 속에서 두 장르(조상화와 죽은 자연)를 결합함으로써, 비록 구성적인 접근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얼굴을 만들어낸다. 클래스 올덴바그에게서 가장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실물을 크게 만들어 그것을 가소화 해서 과도한 일상성에 대한 맹신을 꾀하는 팝 아트 조각의 거장이다. 마찬가지의 도움을 다니엘 스포에리의 작품에서,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모든 것은 변하고 사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의복을 입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식사 찌꺼기가 영원히 달라붙어 있는 그의 조각 박스에서 얻을 수 있다. 나는 도메니코 콜란토니의 "Georgica 2000"도 생각해 본다. 이것은 등 뒤로 들판의 풍경을 간직한 채 죽어 있는 침략적인 자연을 이야기하기 위해 거다란 몇 개의 캔버스를 이용한 사이클이다. 정신적인 도약으로, 그 속에서 사물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실제에 대한 규범상의 비전을 제거해 버린다. MC 와 그의 강박 관념적인 우주, 즉 일상이라는 투명한 관 속으로의 여행, 초 면밀적인 경향을 전혀 담지 않은, 삶에서 그림으로의 이행을 설명할 열쇠가 바로 여기 있다. 영식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고 현실과의 연관 아래, 현실의 차원에서 그 차원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리면서 이 세계의 기본적인 재료들은 캔버스 위에서 실제와 마찬가지로 생생하게 재건축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조형적인 인식은 유화용 그림풀감/아크릴로 가려진 시율레이션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라는 새로운 골격으로 사물들의 골격(몸과 혼합된 모래)들을 바꿔 놓는데서 탄생한다. 현실은 유기적인 송고화로 들어가기 위해 위장의 단계에서 내려오게 된다. 유기적인 송고화만이 회화의 현실관련성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다. 현실은 성장을 위해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유년기의 형식을 되찾아 동시대적인 접근이라는 성숙한 애석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인용할 목록과 중요한 순간들의 목록을 살펴보고, 그 이면의 철학적 내용들을 찾아내려고 하면 한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아마도 MC의 여정에 가장 적합한 용어가 될 커뮤니케이션 이 영원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금방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림의 표면은 개념과 계획, 제작과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진실은 거기, 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 작품은 재료, 색상, 냄새, 맛의 유전적 이해에서 탄생한 재료의 에스페란토로 이야기한다. 오감, 말 그대로 자연(외적 내적 자연) 속에 자신의 위치를 정한 감각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그림이다. 몇 년 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억하고, 감정적인 시각의 산물인 측각이 재연된 세계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MC가 새롭게 도전을 한 것이 우연은 아니었다. MC의 커뮤니케이션은 성숙되고 뿌리가 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의 회화는 수사학과 정치적인 냉소주의의 결핍되어 있지는 않다. 화가는 사물들을 진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순수한 재료의 힘을 가진 형상의 수준으로 고양시킨다. 화가는 정면 캇, 직접적인 전망, 자연주의적인 색조, 사물의 유출을 두드러지게 하는 단조로운 배경을 선택한다. 순수한 형식을 직접적으로 포착해보라.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집, 우리의 삶, 일상의 차원에서 꾸는 우리들의 소박한 꿈을 가득 채우는 사물의 명쾌한 평범성과 대화해보라.

자연적인 자연의 시선은 회화의 대중적인 차원으로 이어진다. 그렇다. 수준이 높으면서도 일관성 있게 대중적이다. 모양이 변한 코와 입 앞에서, 스스로의 신경증적인 기질을 확대시키는 속물, 근성 앞에서 나는 고급 문화와 대중적 커뮤니케이션 간의 결합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중적"이라는 것이 그림의 표면을 겸게 그을리듯 달라붙어 있다. 거기서 이용자에게로 돌진하는 의사 소통의 차원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연속적인 송들, 영식 뒤에, 메타포와 은유 뒤에, 색상과 다양한 색조 뒤에, 모든 재료와 전체 사이클의 가치 뒤에 숨겨져 있던 중들이 윤곽을 드러낸다.

아홉 개의 사이클은 작품활동을 한 10년 세월 그 이상의 것을 정의한다. 그것은 적절하게 분해되고 교차되는 방식으로 성장한 아홉 개의 모멘트이다. 각각의 시기가 한 사이클마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갈계, 그리고 끊임없이 뜻붙여지고 실현되고 변화되고 수정된다. MC는 삶, 교통, 성장, 아픔, 사랑의 냄새가 나는 야 아름 개의 두드러진 단편들을 통해 세계의 프리즘을 이야기한다.

마침내 자연은 본연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유애한 모든 타협을 벗어나 자신의 원숙한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바로 자연적인 자연으로, 아직도 우리들의 것인 이 세계의 아홉 부분들 사이의 여정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듯하다. 그것은 더 이상의 기교가 없는 위치이다. 마침내 우리들의 미래 속에 들어있으나 언제나 기억에 의해 활기가 되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동물들

모래 재료는 응미 있는 아홉 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진 이 자연적인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감각을 강조한다. 여기 사람들, 동물, 식물들이 있지만 사람됨에 의해 탄생되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지구의 교양적인 조화를 도와주는 건물들도 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화가의 여정 위에 동물들도 몇 마리 등장한다. 영감을 받은 인식력, 개인적인 시선, 삶의 내부에서의 성장, 실제 세계를 주의 깊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무엇인가 말하는 동물 설화집에서 영감을 받아 인식하게 된 것들이다. 본능적인 시선, 잔인한 포즈, 갑자기 들에 넣을 수 있게 되고, 일순간 인간화되어 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동물들이 그려진 작은 프레임 속에서 그 어떤 장식도 찾아볼 수 없다. 자연은 여기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된다. 감정적인 강요에 모두 너그려줄 수 있게 자연은 진실하고

시적이다. 아홉 개의 사이클 감각은 서사적인 자극 없이 그림을 보며 스스로 재창조되는 감정들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MC는 어떠한 감정을 만들어내야 할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강도를 높여거나 줄이는 기억의 짐 꾸러미 속에 간섭을 하려 들지도 않는다. 동물이라는 객관적인 존재를 그 기억 속에 살게 하는 것은 우리 뿐이 된다. 건물, 육체, 유기적인 자연의 문법에 자양분을 주는 다른 사이클에서와 마찬가지이다.

건물

건축적 풍경에 대한 비전이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로마가, 겹겹이 쌓여 성층화 된 친안한 역사가, 있을 수 없는 완벽주의들이, 봉규칙한 빛에 의해 취해 있는 강렬한 둘이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 MC의 로마는 존재하지 않는 도시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MC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강렬하고 가혹한 영혼의 상태를 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화 재료는 정확하게 선택되었고 구역과 지구, 교외와 변두리, 크고 작은 도로들이 연구된다. 작품들 속에서 여러분은 스타일, 영월성, 완벽한 기능이 된 미학을 위한 유행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새 건축적 도덕성을 선택한 윤리와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피아첸티니 파의 파시스트적 이성주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을 대광장으로 만드는 으뜸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파르네시나, 오스텔로, 지움리티 가의 티르미니 역사, 4월 21일 대로의 마리오 데 렌치 등등이다. 그림에서는 포출라나, 원 대리석, 석회가 다시 등장한다. 이런 재료들을 통해, 로마는 모든 환상에서 벗어나서 도시를 고통스럽지만 예외적인 곳으로, 지방주의가 없는 부조리한 곳으로, 자연을 위해 영원히 남아있는 사물을 같이 카타르시스적인 곳으로 만들어 주는 생명력 넘치는 중심지가 되어 스스로를 자랑해낸다.

인물들

여기서 MC는 책슈얼리티와 에로티시즘을 선택한다. 피부와 그것을 환기시키는 볼륨을 사진으로 찍는 것 같은 시선을 여성의 몸 위로 부드럽게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인물들은 은밀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각이 지게 몸을 비틀고 이상한 액스터시에 빠져, 그 그림을 탄생시킨 재료들처럼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운 그들의 피부가, 마찬가지로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운 지형을 만들어 낸다. 여성의 포즈는 와가가 그런 그림을 그린 '이유'와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며, 개인적인 친실과 내면적인 망설임 없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준다. 그러나 이것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불안정한 관음증과 호색적인 눈길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영식주의에서 빛이나기 위해 여인의 육체는, 자연적인 자연이 이용자와 또 다른 사람, 즉 우리들의 본능을 고스란히 놓아둔 채 우리를 완성시키고 이성을 신죽성 있게 만드는 단 한 사람 사이의 계엄이 어떻게 키가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결국 문화는, 특히 부조화를 이루는 이질성 속에서, 편파적인 투정 속에서, 균등하지 않은 차이 속에서, 혼합되고자 하는 여러 부분들 사이의 견실적인 복증법으로 남게 된다. 연기증 나는 육체와는 대립되는 모래와 삭칼 있는 혀으로 여성을 이야기하는 게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건 가능만 일이 되었고 혼합은 부드러워지고 육체와 내면적인 시선의 재생적인 미덕을 포착하게 되었다.

구름들

여기서 풍경은 결정적인 주상성을 보여주며 환기적인 자연의 신비주의에 근본적으로 접근해 있음을 보여 준다. 구름들은 영광적이고 부드러우며 몇몇 지점에서는 엷어지기도 하고 무형의 어떤 것이 갑작스러운 밀도를 요구하는 카오스적인 그림의 얼룩처럼 하늘에 사흘리간다. 화가의 작품들 중 가장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작품들, 숨이 울창한 정신의 자연 속에서, 신격화한 자연을 애워싼 신비 속에서 시선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다. 그럼 물결은 길고 성스러운 에너지, 신비한 도약, 실현 불가능한 꿈, 삶이라는 물리적 충격 내에서의 영식적이며 정연한 비행들을 머옹하는 부드러운 양유로 변한다. MC는 구체적인 영식과 증대하는 주상성 사이에 불명료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외와적 시선의 절충적인 리듬을 확고히 안다. 세계는 주관적인 예식 대상으로 존재한다. 외와는 비전이 탄생된 시대를 나타내는 징후가 된다. 대신 봇은 밀도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영상학적으로 기록된 표면 위에서 움직이기 위해 사물을 관통하는 일종의 지표로 변한다. 구름은 그 성질상 물어져 버리지만 그림은 그런 구름을 움직이지 않게, 통합된 외와적 임 속에서 영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은 경계의 표시이며, 그리고 시선의 시야를 통해, 사고의 감정을 통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풍경들

묘사된 장소의 움과 모래를 사용한다. 색깔들과 색상을 섞어 선택한 풍경을 조화롭게 그려낸다. 원거리에서 본 MC의 시야는 여행 중에 지났던 장소, 기억을 연상시키는 해변 가, 리아스식 해안, 성과 거친 육지, 산과 언덕들 위에서 활기를 띠는 시선의 강렬한 플래시 쪽으로 열려 있다. 선택된 풍경에서는 강철이나 시멘트가 충돌하는 일은 전야 없다. 반대로 자연적인 자연은 우리를 복잡한 순환 도로들과 멀리 떨어진, 대도시 밖의 유쾌한 공간으로 이끌어줄 채색된 환경에 대한 감정 속에 살아 있다. MC의 세계는 흥이 안 색상으로, 사물들의 완전한 힘을 재 휘기시키는 점독의 재앙에 대한 뿌리 깊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한다. 풍경들은 시선을 매료시키고 실재이지만 낯설고, 다른 사진 속의 플래쉬처럼 인상적이고 매끄러

운 지형을 우리에게 되돌려준다. 그런 작품들을 한번 일별하기만 해도, 이 풍경들이 우리들의 DNA의 어떤 구역에 숨해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따금 이미 지나온 장소에 계속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신적인 회회에서 늘 그렇듯이 여기서도 문제는 이미지들의 강정적인 가시성에 대한 논점이다.

캡시 & CO.

접시는 그릇으로 특히 기억이라는 내용을 담는다. 그들이 지닌 호화롭고 엄숙한 멀정으로 파스티를 승격시킨다. 주물충배가 중심에 있으며 그것은 마카로니와 깊이 속고 된 열망을 담은 다른 형태의 파스타들을 함유하고 있다. 지층해의 맛있는 파스타는 매개를 없이 형상으로 변한다. 아이러니가 시각적인 크기들을 증가시키면서, 새로 그대로 남아 있고 얼룩자 있으며, 화가의 도덕적 토양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색다른 광 아트를 자극하는 요리 여행을 재창조하고 있다. MC는 "파스타 알라 케카(Pasta alla Checca)", "파스타 알 수고(Pasta al Sugo)", "치즈와 고추" 혹은 "파스타 콘 레 젬메(Pasta con le Gemme)"를 거대하게 만든다. 절망 기본적이지만 음식의 조화라는 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재료들을 원색으로써 최고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널리 확산된 믿음에 대한 유희를 벌인다. 음식은 화폭의 중앙에 너그럽게 재배치된 후 세련되고 영속한 형상으로 돌아온다. 그것은 현대적인 장르들의 수사학, 도영 정신, 고급과 저급 문화사의 경계에 대한 강요는 충분했었다고 우리에게 속삭인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최근 20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동 삶의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다수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MC는 이러한 일을 "단순하게" 수행함으로써, 일상의 특별한 가치들을 회회 이미지의 보편적 가치 속으로 옮겨 놓는다.

초상화

여기서 상체 혹은 반신상은 이 여정의 도덕적인 의도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를 선택한다. 우리는 MC의 친구들과 지인들, 신중한 시선과 차세로 이야기를 하는 실제 얼굴들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각 방면에서의 인간의 관계와 매개를 없애, 그리고 과학으로 가장하지 않고 그림으로 변하는, 교차된 시선에 대한 정직한 관심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MC의 초상화는 달콤한 색조를 사용하지 않지만 말 그대로 육감적인 재료는 제거해 버린다. 초상화를 포함한 모든 징후가 스타일 상의, 그리고 개념적인 선택에 복종하는 것에 충격을 가한다. 활기찬 디자인은, 자연만이 접근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상이성을 속에서 예기치 못한 조화를 만들어 낸다. 구름이나 장미에서처럼 사람의 얼굴도 유기적인 풍경과 동일한 재료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드러낸다. 각 사이클마다 수많은 양의 작품들은 진정한 생산의 개념을 재확인한다. 새로운 포맷, 새로운 자자들, 새로운 재료에 따라 같은 이미지를 끊임없이 재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복합적인 작품들, 깃발, 기본 디자인의 물체들, 비디오 벽(여기서 텔레비전은, 프로그램에서는 절대 발견해낼 수 없는 요소들을 이용해 상상력에 도전한다) 속에서 비전이 다양화된다.

장미

경이로운 꽃, 인간이 열정적으로 숭배하는 보편적인 꽃, 사람을 매혹시키고 향기를 발산하는 신비의 물체인 장미는 꽃이라는 자연 속에서 감동적인 원형으로서,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는 구근 식물을 중 가장 많이 뒤섞인 복잡한 식물이다. 특히 그 색깔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경의하는 바로 그 기본적인 색조를 피고 있다. 사실 장미는, 가시적인 삶, 부가적인 신비, 계속적인 흐름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의 등의어인, 아홉 개의 사이클이 속해 있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리고 붉은 색은 삶을 위한, 강렬한 강정들을 위한, 중요한 이성으로서의 사랑을 위한 근원적인 열정의 흔적을 회화에 부여하면서 모든 것을 휘감는 "핵영적인" 모두(齊頭)가 된다. 장미는 화관과 캔버스를 휘감으며, 푸백의 육체처럼 밖으로 스스로를 내던지며, 선명하게 덤어리진 재료들로 자기 몸체의 풍을 형성한다. 장미는 주제적 프리즘의 시작과 끝이 되고, 시간을 초월해, 광박 관념적이고 급진적이며, 갈상적이고 일관성 있는 프로젝트의 상징이 된다. 장미의 의사 소통력은, 모든 작품이 기교 없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심적이고, 결코 왜곡되지 않은 시선을 통합한다. 마침내 우리는 꿈이라는 것은 이미 확실성이라는 혈관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토피아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식물들

과일과 야채에 대한 MC의 광박관념은 전체 프로젝트의 깊이 있는 의미를 활기시킨다. 아티초크, 레몬, 포도송이, 고추, 토마토들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는 날것 그대로의 재료들이다. 이것들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음식의 원형이며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요리의 생생한 상징이다. 아티초크는 독특한 맛을 가진 고급소러운 야채이며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시골의 소리같은 과일이고 고추는 도취감을 느끼게 하는 기본 양념이며 토마토는 파스타의 매혹적인 핵심이다. 이러한 야채들을 단순히 이용해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런 야채들을 이야기할 때 수사적 기교의 위험이 더 높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이 그것들을 잘 살펴보고, 두 손으로 어리저리 만져보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들의 생물학적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형식 속에 삶의 기술을 제대로 포함시키기 위해서이다. 삶은, 유전적 재생이라는 절대적인 힘을 통내내는 모든 경쟁력을 뛰어넘어내는, 모든 예술사의 위에 존재한다. MC는 모든 작품 내에서, 모든 색상과 임파스토(채료를 두껍게 칠하는 것) 내에서, 명백하게 반복되는 상황 내에서 그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것은 레몬이나 아티초크로 된 세상이다. 전망과 객관성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선의 위치에 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LA NATURA NATURALE
Gianluca Marziani

Animare la pittura con l'anima della natura. Raccontare schegge di vita attraverso la forza organica della materia viva. MASSIMO CATALANI dipinge SCENARI PULSANTI con ossessiva premeditazione, producendo opere che INQUADRANO, pezzo dopo pezzo, una porzione viva e vegetale della realtà. Da sempre riscontro una foga radiosa nell'incendere quotidiano di MC, una frenetica corsa per catturare architetture, ortaggi, corpi, animali, brandelli del patrimonio universale, frammenti di NORMALITÀ davvero disarmante. Una norma talmente prosaica da diventare unica, insostituibile, aderente adogni sguardo esterno che si riconosce in quei satelliti su tavola o tela. La frenesia dell'autore si sente nel dialogo concatenato, nell'oceano di idee che scivola lungo una sintassi rapida, nei progetti mai saturi, nel ritmo di impegni e commissioni che alimenta un MODO DI ESSERE. Ma, soprattutto, si sente ne le opere: inquadrature mini o maxi che entrano dentro la nostra atmosfera, rendendo plausibile la natura contaminata tra bassorilievo e pittura, architettura e scultura, riconoscibilità e deriva mentale.

MC ha una laurea ed un percorso professionale in ARCHITETTURA. Cosa che, forse, vuol dire pochissimo rispetto al progetto pittorico: moltissimo, però, rispetto al rigore classificatorio con cui l'autore scandaglia la conformazione del reale. In fondo, edificare luoghi significa prendere materie preesistenti, primarie per conformazione e status (ferro, cemento, vetro, legno, pietra), dandogli la fisionomia ultimativa dell'addizione architettonica (ferro, cemento armato e vetro partoriscono la maggior parte degli edifici che ci circondano). MC, con le debite distanze e vicinanze, riporta quel meccanismo nel suo vocabolario pittorico, usando materie primarie (terre, sabbie, cemento, pozzolana) per edificare in piano la proiezione bidimensionale del vero. Oggi l'artista vive lontano dalla professionalità d'architetto: e forse sta qui la sua fortuna intuitiva ed istintiva, costruita sulla concentrazione attorno alla capacità focalizzante di sintesi iconografica. MC si è liberato da un'incombenza mentale per fluidificare, nelle architetture materiche della natura, il Dna di una composizione catartica.

Ineccepibile, al dunque, è il valore d'archetipo che riveste MC nella nostra pittura figurativa. Un approccio formale e costruttivo che ridefinisce il contenuto dello sguardo, la natura mutante del quadro. I etica dietro codici e significati. Sul piano estetico l'autonomia dell'autore non ricalca l'attuale sensazionalismo pittorico. Al contrario, si percepisce la distillata purezza dei porsi nel mondo, l'altrettanto pura evidenza del disporsi dentro il quadro. Non è da tutti, oggi, costruirsi la fisionomia di ARCHETPO RICONOSCIBILE dentro un uragano di posizioni del contemporaneo. Potrà piacere o meno MC, un fatto lecito e soggettivo: di fatto non si può, oggettivamente, disconoscerne il ruolo di apripista verso spazi dove altri non si erano spinti.

Ma veniamo alla memoria da cui tutto nasce. Partiamo dalle radici che qui si sentono: e (fortunatamente) non poco. MC non rinnega nulla degli studi pittorici e letterari, filmici e fotografici lungo anni di scatenate passioni. Il suo humus formale, infatti, contiene sedimenti di fertili MEMORIE ITALIANE, scivolose membrane che destano lo sguardo verso i GENERI della pittura figurativa. Per l'artista la Storia crea il bolo invisibile che ci guida, scelta dopo scelta, sintesi dopo sintesi. Questa palla creatrice si impasta di paesaggi, ritratti e nature morte: non a caso, per tradizione e presente, il diapason triologico dell'iconografia universale. Sono tre mondi dove la citazione diventa naturalissima ma invisibile, a conferma che la CULTURA DEI GENERI necessita di un filtro continuo e silenzioso. Una modalità fatta di intuito ed intelligenza, frutto del "modo" in cui si tratta la normalità.

Anzichè scomodare, lungo le righe del testo, una carrellata sparsa di citazioni per ogni gusto, mettiamo assieme alcuni nomi che soddisfano, in un blocco veloce, gli equilibri tra memoria e presente. E partiamo, senza remore, dalle nature morte di Caravaggio: faro realistico per sentire gli odori della buccia, il rumore dei semi, i pizzichi dei frutti troppo maturi. Un miscuglio di frutta e verdura che torna, con sagacia e tocchi sublimi, nelle composizioni universali di Fede Galizia, luce femminile di una pittura seicentesca che raccontava la bellezza onesta delle cose normali, l'erotismo subliminale di un ortaggio, le molte sensualità che rispecchiano l'organico vegetale dentro l'organico umano. Impossibile, poi, non scomodare Arcimboldo con la sua ironia collagistica, col suo ribaltamento della

norma dentro la norma. Frutta e verdura edificavano volti umani per pure vicinanze compositive, addizionando due generi (ritratto e natura morta) nell'inclassificabile archetipo della sublimazione organica. Un aiuto ulteriore arriva da Claes Oldenburg, maestro di sculture pop che ingrandisce il vero e lo plasticizza, stuzzicando il feticismo dell'ECCESO di NORMALITA'. Lo stesso che ritroviamo nei resti di Daniel Spoerri, nei suoi box scultorei dove gli scarti del pranzo si fissano per sempre e si verticalizzano, a conferma che basta guardare il mondo con nuovi angoli e tutto cambia, le cose si rivestono di abiti impensabili e stravolgenti. Penso anche a "Georgica 2000" di Domenico Colantoni, un ciclo dove alcune grandi tele narrano invadenti nature morte con paesaggi di campagna alle loro spalle. Un salto mentale in cui il vero resta tale ma taglia la prospettiva canonica sul reale. E' proprio qui la chiave che spiega MC e il suo universo ossessivo: un viaggio nel tubo trasparente del quotidiano, un passaggio dalla vita al quadro senza alcuna piega iperrealista. Le forme scivolano dai volumi reali alla bidimensione in modo particolare e DEREALISTICO: ricordandoci che la materia primaria del mondo può riedificarsi, in maniera altrettanto viva, sopra la tela. In tal modo la riconoscibilità figurativa non nasce dalla simulazione velata di olio/acrilico ma dal trasporre lo scheletro delle cose (terre e sabbie degli impasti) nel nuovo scheletro del quadro. La realtà scende dal livello della simulazione per entrare nella SUBLIMAZIONE ORGANICA, l'unica che coglie il processo derealistico della pittura. La realtà si riavvolge per crescere, recupera l'infanzia della forma per ridarci la matura versione del suo approccio contemporaneo.

Si potrebbe scorrere un interminabile elenco di richiami e attimi salienti, trovare ulteriori contenuti filosofici. Alla base di tutto, però, permane la COMUNICAZIONE, forse il termine più adatto al percorso di MC. Guardi e capisci tutto da subito, nulla ti viene nascosto, la superficie del quadro contiene l'ideazione e il progetto, l'esecuzione e i contenuti. La verità sta lì, visibile davanti agli occhi. L'opera parla nei termini di un ESPERANTO MATERICO che nasce dalla comprensione genetica delle materie, dei colori, degli odori, dei sapori. Una pittura costruita attorno ai cinque sensi, letteralmente SENSORIALE nel suo disporsi dentro alla natura (esterna ed interiore). Non fu casuale, anni addietro, la sfida di MC con un progetto per non vedenti, un'idea dove il tatto, figlio della vista emozionale, poteva fornire la comprensione efficace del mondo riprodotto. La comunicazione di MC si conferma matura e radicata, mentre il quadro non pecca di retorica e qualunque. L'autore non banalizza le cose ma le esalta nel loro grado iconico di pura efficacia materica. Sceglie tagli frontali, visioni dirette, toni naturalistici, fondali piatti che esaltano la fuoriuscita dell'oggetto. Vivi la presa diretta con la forma pura, dialoghi con la limpida banalità delle cose che riempiono le nostre città, le nostre case, le nostre vite, i nostri piccoli sogni a misura di quotidiano.

La NATURA NATURALE dello sguardo porta ad una dimensione POPOLARE della pittura. Sì, altamente e coerentemente popolare. Alla faccia di nasi e bocche che cambiano fisionomia, di snobismi che accrescono la propria temperatura nevrotica, trovo ideale il connubio tra cultura alta e comunicazione popolare. Sento che il "popolare" si attacca come abbronzatura alla pelle del quadro. Ne delinea il primo livello comunicativo, quello che si scaraventa addosso al fruttore. E che ne disegna i successivi strati, quelli nascosti dietro una forma, dietro le metafore e le allegorie, dietro i colori e le varianti tonali, dietro la scelta di ogni materia e la valenza di un intero ciclo.

NOVE CICLI definiscono oltre dieci anni di pittura. Nove momenti che crescono in modo giustamente scomposto e trasversale. Non un periodo conchiuso per ogni ciclo ma un lungo e inarrestabile aggiungere, sperimentare, cambiare, rivedere. MC racconta il PRISMA DEL MONDO in questi nove spicchi che odorano di vita, sofferenza, crescita, dolore, amore...

Alla fine la NATURA rimane se stessa. Torna al suo primitivismo evoluto, fuori da qualsiasi compromesso velenoso. NATURA NATURALE, come ci ricorda il percorso tra le nove parti di un mondo ancora nostro. Un posto senza più artificio. Finalmente una natura dentro il nostro futuro ma con la memoria sempre desta.

ANIMALI

La materia sabbiosa sottolinea il SENSO DEL VIVENTE di questa NATURA NATURALE in nove cicli dialoganti. Ecco le persone, gli animali, i vegetali ma anche i luoghi che nascono dalle persone, che servono ai viventi, che aiutano l'orchestrata armonia terrestre. E così, eccoli, alcuni animali nel districato percorso autoriale. Conoscenze ispirate, un bestiario che racconta qualcosa della privata visione, della crescita dentro la vita, del manifestarsi vigilmente sul mondo reale. Nessuna retorica nello sguardo istintivo, nelle pose ferine, nei

piccoli frame dove un animale diventa improvvisamente inquadrabile, umanizzato nell'attimo in cui i fruttori si sentono come loro. La natura si manifesta qui nel modo giusto: vera e poetica senza che nulla indulga al ricatto emotivo. Ognuno dei nove cicli ci trasporta nei sentimenti che da soli, senza spinta narrativa, riconoscono attorno al quadro. MC non decide quali emozioni costruire, nè si intromette nel bagaglio di memorie che il fruttore scatena o diminuisce d'intensità. Tocca a noi viverci l'oggettiva presenza degli animali: proprio come negli altri cicli dove si alimenta la grammatica dei luoghi, dei corpi, delle nature organiche.

ARCHITETTURE

La visione dei paesaggi architettonici guarda in giro ma privilegia Roma, la sua storia di feroci stratificazioni, iperfezionismi impossibili, le intensità di una pietra che si inebria di luci anomale. La Roma di MC è una città che non esiste poiché molti non la vedono più, si dimenticano della sua energia radicale, di quello stato d'animo crudo e crudele. La materia pittorica fa così precise scelte, indaga quartieri e rioni, periferie e confini del centro, grandi e piccole arterie. Nelle opere senti il cuore di un'etica che seleziona la MORALITA' ARCHITETTONICA, fregandosene delle mode a favore dello stile, del rigore, dell'estetica che diventa funzione perfezionata. Il razionalismo fascista della scuola Piacentini non poteva che guidare il percorso come una grande piazza da cui tutto parte: e allora ecco la Farnesina, un Ostello, la Stazione Termini in via Giolitti, Mario De Renzi a viale XXI Aprile... Nei quadri rispunta la pozzolana, il marmo bianco, il travertino, la sabbia di fiume, le materie vive con cui Roma alimenta se stessa, fuori da qualsiasi chimera, dentro un metropolismo vitale che la rende spasmodica ma eccezionale, assurda senza provincialismi, catartica come le cose che restano eterne per natura.

FIGURE

Qui MC sceglie la sensualità e l'erotismo, scivola lungo il corpo femminile con una padronanza morbida dell'occhio che fotografa l'epidermide e i suoi volumi evocativi. Le figure dipinte hanno pose nascoste, contorsioni angolate, strane estasi che rendono la pelle una geografia instabile, mutante come i materiali con cui nasce la stessa pittura. L'attitudine al sesso femminile ci dice molto sui "perché" e sui "come" dell'artista, sulle propensioni tra verità privata e disvelarsi senza remore interiori. Ma non è ciò che preme il sopravvento poiché siamo noi a vitalizzare quel voyeurismo instabile dell'occhio libidinoso. Il corpo della donna, a prescindere dai suoi formalismi eccitanti, conferma come la NATURA NATURALE sia un gioco crescente tra il fruttore e l'altro, l'unico che ci completa lasciando intatto il nostro istinto ed elastica la ragione. La civiltà resta, in fondo, una dialettica costruttiva tra parti che vogliono amalgamarsi, soprattutto nella diversità stridente, nel conflitto parziale, nelle disomogenee distanze. Può sembrare impossibile raccontare la DONNA con sabbie e terre colorate, materie ruvide all'opposto della vertiginosa fisicità. Eppure tutto funziona, l'impasto si ammorbidisce e capta la virtù rigeneratrice del corpo e dell'occhio interiore.

NUVOLE

Il paesaggio dimostra qui la sua determinata astrazione, un radicale predispossi al misticismo della natura evocativa. Le nuvole scorrono nel cielo come macchie di pittura frenetica, setosa e ovattata in alcuni punti, caotica dove l'impalpabile chiede densità improvvise. Sono le opere più indefinibili dell'artista, quelle dove lo sguardo sale verso l'alto, dentro le nature boschive dell'anima, nel mistero che circonda l'apoteosi della natura. Il dipingere si tramuta in una lunga ENERGIA SACRALE, un balsamo malleabile che permette baizì misticici, sogni impossibili, voli pindarici dentro la gravità fisica del vivere. MC conferma il ritmo eclettico dello sguardo figurativo, segnando il confine ambiguo tra forma concreta e astrazione crescente. Il mondo come oggetto di interpretazione soggettiva. Lo sguardo come strumento per interpretare il mondo in forma soggettiva. La pittura diventa il sintomo dell'epoca in cui nasce la visione. Il pennello, invece, si tramuta in qualcosa di denso, una sorta di termometro che trafilge le cose per poi muoversi sulle superfici della registrazione iconografica. Le nuvole si dissolvono per loro natura, eppure la pittura può renderle immobili, eterne dentro la sintesi del potere figurativo. Un segno del limite e di come superarlo attraverso la poesia dello sguardo e le emozioni del pensiero.

PAESAGGI

Usare terre e sabbie che appartengono ai luoghi narrati. Miscelare colori e toni in pastosi raffiguramenti dei paesaggi prescelti. La visione a campo lungo di MC guarda ai posti attraversati nel

viaggiare, ai flash densi di uno sguardo in diretta su spiagge evocative, coste frastagliate, isole e terraferma aspra, montagne e colline che muovono la pittura coi suoi gesti passionali. Nessun impatto d'acciaio o cemento nei paesaggi prescelti. Al contrario, la NATURA NATURALE vive nelle emozioni di un'ATMOSFERA CROMATICA che ci guida negli spazi ameni, quelli fuori dalle metropoli, ben lontani da tangenziali e raccordi. Il mondo di MC si appiattisce nei colori per aprirsi alle radici profonde delle memorie, verso le CALAMITE DEL SILENZIO che rievocano l'assoluta potenza delle cose. I paesaggi magnetizzano lo sguardo e ci restituiscono una geografia vera ma sconosciuta, impressiva eppure scivolosa come il lampo di una fotografia altrui. Basta scorrere le opere per sentire che i luoghi appartengono a qualche zona del nostro Dna. Non sappiamo bene dove stiano, talvolta riconosciamo un sito già attraversato. Ma anche qui, come sempre per la PITTURA MENTALE, il problema verte sulla visibilità emotiva delle immagini.

PIATTI & CO.

Il piatto diventa contenitore ma soprattutto CONTENUTO DELLA MEMORIA. Ecco innalzarsi le paste al loro principesco slancio solenne. Il feticcio si mette al centro, contiene maccheroni ed altre forme con meditata bramosia prospettica. La pasta del gusto mediterraneo si tramuta in ICONA senza mediazioni. E ricrea un viaggio culinario dove l'ironia aumenta le dimensioni visive, eccitando la stravaganza pop di una pittura che rimane materica, sporca, estremamente radicata al suolo morale dell'artista. MC rende enorme una "Pasta alla Checca", una "Pasta al Sugo", una "Cacio e Pepe" o una "Pasta con le Gemme". Gioca davvero coi culti diffusi del mangiare eccellente, con le elementari perfezioni di ingredienti minimi ma empatici nell'abbinamento alimentare. Il cibo torna ICONA, aulica e solenne dopo una generosa ricollocazione al centro della scena. Ci sussurra che bastava forzare la retorica dei generi contemporanei, lo spirito delle contaminazioni mediatiche, i confini culturali tra alto e basso. La valutazione degli ultimi vent'anni, se ci pensiamo bene, prevede molteplici prospettive da cui guardare gli oggetti del vivere comune. MC ha fatto 'semplicemente' questo, portando i valori privilegiati del quotidiano nel valore universale dell'immagine pittorica.

RITRATTI

Qui il primo piano o il mezzobusto scelgono la storia più adatta alle intenzioni morali del percorso. Vediamo amici e conoscenti di MC, facce vere che si raccontano con sguardi e modi altrettanto sinceri. Percepisci l'onestà attenzione al rapporto umano tra le parti, allo scambio di sguardi che si tramuta in pitture senza mediazioni e finzioni sceniche. Il ritrattismo di MC non implica toni caramelloosi ma rimanda ad una matericità letteralmente carnale. Colpisce che ogni genere, compreso il ritratto, si sottometta al tatuaggio di scelte stilistiche e concettuali. Gli elementi vivi creano armonie impreviste tra quelle diversità che solo la natura avvicina e avvicenda. Come accade con le nuvole o le rose, anche il volto scopre l'impensabile narrarsi con la materia stessa del paesaggio organico. La grande quantità di pezzi per ogni ciclo, poi, ribadisce un vero concetto produttivo. Un inesaurito reinventare la stessa immagine secondo nuovi formati, nuovi supporti, nuovi materiali. Una visione che si moltiplica nelle opere composte, nei gonfaloni, negli oggetti di design elementare, nei videowall (dove il contenuto televisivo sfida l'immaginario con elementi che nei programmi non scoviamo mai).

ROSE

Fiore delle meraviglie, culto universale della passione umana, oggetto del mistero che ammalia e profuma: la Rosa rimane l'archetipo emozionale dentro la natura floreale, il più intrigante e complesso dei bulbi a grande diffusione popolare. I suoi colori, innanzitutto, sono le tinte primarie con cui definiamo la natura stessa. Che ci porta, di fatto, al meccanismo biologico a cui appartengono i nove cicli, sinonimo di vita visibile e mistero aggiunto, di flusso continuo e contenuti impenetrabili. Il rosso, poi, diventa l'incipit "rivoluzionario" che tutto avvolge, dando alla pittura il segno di una radicale PASSIONE PER LA VITA, per i sentimenti intensi, per l'amore come ragione primaria. La Rosa si avvolge su tavole e tele, si scaraventa fuori come un corpo monocromo, stratifica le sue membrane con netti grumi materici. Diventa l'inizio e la fine del prisma tematico, il simbolo senza tempo di un progetto ossessivo e radicale, sentimentale e coerente. La sua comunicatività sintetizza uno sguardo centrale e mai distorto, proprio come ogni opera si mostra senza artifici. Alla fine comprendiamo che non esiste alcuna utopia dello sguardo poiché il sogno già circola nelle vene dell'ovvio.

VEGETALI

L'ossessione di MC per la frutta e la verdura catalizza i profondi significati dell'intero progetto. Carciofi, limoni, grappoli d'uva, peperoncini, pomodori: sono la materia prima che vediamo con maggior frequenza di versioni. Non si tratta di scelte casuali ma di archetipi del mangiare italiano, simboli vivi di una cucina senza eguali nel mondo. Il carciofo come ortaggio raffinato dal sapore inconfondibile, il limone come agrume reale del calore mediterraneo, l'uva come suono della campagna da cui nasce il vino, il peperoncino come basilare condimento euforizzante, il pomodoro come cuore magnetico della pasta. C'è più rischio di retorica nel raccontare questi vegetali che nella semplice fruizione dei loro essere pittorico. Bisognerebbe guardarli bene senza dire altro, girarseli nelle mani, poggiarli sul tavolo e studiarli a fondo. Non per comprenderne la storia biologica ma perché dentro quelle forme racchiudiamo l'arte del vivere bene. La vita resta superiore ad ogni storia d'arte, battendo qualsiasi emulazione che imiti la forza universale della riproduzione genetica. MC lo ribadisce dentro ogni opera, dentro ogni colore e impasto, dentro ogni apparente ripetizione. Il mondo in un limone o in un carciofo. Il mondo come un limone o un carciofo. Questione di prospettive ed obbiettivi, si direbbe. Questione di POSIZIONI DELLO SGUARDO, si direbbe...

NATURAL NATURE

Gianluca Marziani

Making the spirit of nature breathe through his painting, and using the vital force of natural materials to portray fragments of real life, MASSIMO CATALANI paints PULSATING SCENES with obsessive premeditation, producing works which, zoom in, detail by detail, on a live and b (l)ooming slice of reality. I have always found that there is a fiery passion driving MC, a frenetic quest to capture images of architecture, vegetables, bodies, animals, parts of our universal heritage and fragments of a truly disarming ORDINARINESS. An ordinariness that is so prosaic as to become unique and irreplaceable, capturing the gaze of every observer of those satellites on board or canvas. The artist's freneticism can be felt in the way his discourse intertwines, in the ocean of ideas he expresses in rapid syntax, in his never-ending projects, and in the pace of the commitments and commissions that constitute his WAY OF LIFE. But above all else, it can be felt in his works: small or large scale formats that enter our environment, rendering plausible images of nature that lie mid-way between bas-relief and painting, architecture and sculpture, recognizable reality and mental digression.

MC is by training and profession an ARCHITECT. That may have little to do with conception behind his painting, but it has a lot to do, however, with the rigor with which the artist comprehends and categorises reality. In essence, to construct buildings is to take pre-existing materials with primary structure and status (iron, concrete, glass, wood, or stone), and to endow them with the final appearance of an architectural composition (iron, reinforced concrete and glass are what comprise most of the buildings around us). With due account given to all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MC imports that mechanism into his pictorial vocabulary, using natural materials (soil, sand, cement, and pozzuolana) to construct upon a flat surface his two-dimensional vision of reality. Today, the artist's occupations lie outside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that may be where his intuitive and instinctive fortune lies, in that he can focus on his capacity for graphical synthesis. MC has freed himself from what was an intellectual hindrance so as to fluidify, in the matter-based architecture of nature, the DNA of a cathartic composition.

Undeniable, then, is MC's value as an archetype in figurative painting, in that he adopts a formal and constructive approach that redefines the way we look at a picture, the changing nature of the image and the ethics behind the codes and meanings. On the aesthetic level, the artist remains independent from the current trend of pictorial sensationalism. On the contrary, one can perceive a quintessential purity in the way he positions himself in the world, and equally pure evidence of how he places himself within the picture. It is not within everyone's reach, today, to cast himself the profile of a RECOGNIZABLE ARCHETYPE given the whirlwind of positions in contemporary art. Whether one likes his works or not, and this is a justifiable and subjective fact, one cannot, objectively, fail to recognise MC's role as a pathfinder leading to areas where others have not ventured.

But let's look at the seeds from which all of this stems. We can start by examining the roots, which can be felt to quite an extent here (fortunately). MC in no way reneges his graphic and literary, film and photographic studies undertaken during years of unbridled passion. Indeed, his breeding ground contains deposits of fertile ITALIAN MEMORY, slippery membranes that have turned his attention towards the GENRE of figurative painting. For the artist, History is the stuff that guides us, choice after choice, synthesis after synthesis. This creative core is a mixture of landscapes, portraits and still lifes: and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se three aspects represent, both traditionally and at present, the height of universal iconography. They are three worlds in which it is most natural to "quote" others, albeit invisibly, which proves that the CULTURE OF GENRES requires a continuous and silent filter, a method based on intuition and intelligence, generated by one's "approach" to real life.

There is no need, in this text, to quote an array of references to suit all tastes. Instead, we can mention just a handful of names that serve to illustrate, in a few words, the equilibria between past and present. And we can start, without further ado, with Caravaggio's still lifes: a beacon of realism in which one can smell the lemon peel, hear the seeds popping and taste the fizziness of over ripe fruit. The same concoction of fruit and vegetables can be seen again, painted with astuteness and sublime touches, in the universal compositions of Fede Galizia, a feminine star of seventeenth-century painting who portrayed the honest beauty of plain objects, the subliminal eroticism of a vegetable, and the manifold sensuality reflected by vegetable life in human life. Mention must also be made of Arcimboldo with his collagist irony and his way of turning normality upside down within normality. Fruits and vegetables make up human faces on the basis of their compositional similarity in a union of two genres (portrait and still life) producing an unclassifiable archetype of organic sublimation.

More help comes from Claes Oldenburg, the master of pop sculpture who magnifies reality and plasticizes it, stimulating a fetishism for an EXCESS OF NORMALITY. The same can be said for Daniel Spoerri's leftovers in his sculpture boxes where the remains of a lunch are fixed forever and hung vertically, demonstrating that we only have to look at the world from new angles and everything changes, and things take on an unthinkable and awesome appearance. I should also mention "Georgica 2000" by Domenico Colantoni, a cycle in which a series of huge canvases portray invading still lifes on a backdrop of country landscapes – a mental leap in which reality remains the same but puts a spin on the rules of perspective. It is precisely here that lies the key to MC and his obsessive universe: a voyage in the transparent tube of the quotidian, a passage from real life to picture without any hyper-realistic detours. Forms glide from real-life volumes to bi-dimensionality in a particular and DE-REALISTIC way, reminding us that the world's basic materials can be rebuilt, in an equally vibrant manner, on canvas. In this way, figurative recognisability derives not from a veiled simulation in oils or acrylics, but by transposing the skeleton of things (the soils and sands of the mixtures) into the new skeleton of the picture. Reality descends from the level of simulation to enter the realm of ORGANIC SUBLIMATION, the only world that embraces the de-realistic process of painting. Reality rewinds in order to grow, goes back to the infancy of its form in order to present us with a mature version of its contemporary approach.

The list of references and prominent events one could quote in order to back the theories up with a philosophical content is endless. But basically, at the root of everything is COMMUNICATION, which is perhaps the term that most suits MC's work. You look, and you understand everything straight away. Nothing is hidden from you. The surface of the picture contains the concept and the plan, the execution and the contents. The truth is there, visible before one's very eyes. The works speak using the vocabulary of a MATTER-BASED ESPERANTO that comes from a genetic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s, their colours, smells, and flavours. It is painting constructed around the five senses, literally SENSORIAL in the way it places itself within nature (external and internal). It is no coincidence that some years ago, MC undertook a project for the non-sighted, an idea whereby touch, the child of emotional sight, could effectively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world portrayed. MC shows a capability for mature and well-rooted communication, while his pictures remain free of rhetoric and indifference. The artist does not banalize things, but exalts their iconic rank of pure material value. He chooses frontal views, direct visions, natural tones, and flat backgrounds that make the subjects appear to leap out of the surface. It's like seeing live TV

images of pure shape, or conversing with the limpid banality of the things that day in day out fill our cities, our houses, our lives, and our small dreams.

The NATURAL NATURE of the artist's approach gives his painting a POPULAR dimension. Yes, highly and coherently popular. In spite of the craze for changing the shape of noses and mouths, and despite the snobbism that raises its own neurotic temperature, I find that the marriage between high-level culture and popular communication is ideal. I feel that the "popular" dimension attaches itself like a tan to the skin of the picture. It defines the artist's primary communicative level, the level that most strikes the viewer in the eye. It also outlines the successive layers, the layers hidden behind the shapes, the metaphors and the allegories, behind the colours and varying tonalities, and behind the choice of every material and the value of an entire cycle.

NINE CYCLES span more than ten years of painting – nine phases that have developed in a discrete and cross-sectional manner. It is not that each cycle represents a self-contained period, but rather a long and unstoppable process of accumulation, experimentation, change, and revision. MC portrays the entire PRISM OF THE WORLD in these nine segments, covering all aspects of life, suffering, growth, pain, love...

In the end, NATURE remains the same. It goes back to its evolved primitivism, avoiding any noxious compromises. NATURAL NATURE: the link between the nine segments of a world that is still ours, a place without artifice. And at the end of the day, it is a nature that lies within our future, albeit always arousing our memory.

ANIMALS

The use of sand highlights the SENSE OF BEING ALIVE of this NATURAL NATURE in nine dialoguing cycles. It comprises people, animals and vegetables as well as the places that are generated by the people, that serve the living, and that go towards the orchestrated harmony of the land. And thus animals appear along the artist's creative path. Inspired knowledge, a bestiary that says something about his private vision, his growth in life, about the way he vigilantly makes himself known in the real world. There is no rhetoric in his instinctive approach, in the untamed poses, in the small formats in which an animal suddenly becomes unportrayable, humanized at the moment in which the viewer feels like them. Nature shows itself here as it should: true and poetical, with no indulging in emotional blackmail. Each of the nine cycles transports us to sentiments that all alone, without any narrative input, we recreate around the picture. MC does not explain what emotions should be stirred, nor does he interpose himself in the baggage of memories that the viewer arouses or diminishes in intensity. He leaves it to us to experience the objective presence of the animals: just as he does in his other cycles in which he sets out the structure of places, bodies, or organic nature.

ARCHITECTURAL IMAGES

The artist's vision of architectonic landscapes is sweeping, but privileges Rome, with its history of ferocious stratifications, its impossible perfectionism, and the intensity of its stone that soaks up its atypical light. MC's Rome is a city that does not exist since many people fail now to see it. They have forgotten its radical energy, its crude and cruel state of mind. His painting thus makes precise choices. It explores the residential neighbourhoods and districts, the suburbs and the centre, the major and minor arteries. In his works, you can feel the crux of an ethic that opts for ARCHITECTONIC MORALITY, ignoring fashion in favour of style, of rigor, and of aesthetics, becoming perfect function. The fascist rationalism of the Piacentini school could but lead way the like a huge public square from which all else departs: we thus see the Farnesina, the Youth Hostel, Termini Railway Station in Via Giolitti, [a building by] Mario De Renzi in Viale XXI Aprile... The paintings exude pozzuolana, white marble, travertine, and river silt, i.e. the living matter that feeds Rome, without any chimera, within a vital metropolis that makes it spasmodic, but exceptional, absurd without any form of provincialism, and cathartic like the things that remain, by nature, eternal.

BODIES

Here MC opts for sensuality and eroticism. He smoothes over the feminine body with a gentle mastery of the eye that photographs the epidermis and its evocative volumes. The painted figures adopt hidden poses, angulated contortions, strange ecstasies that turn the skin into an unstable geography, mutant like the materials that give life to the painting itself. His attitude to the feminine sex tells us a lot about the artist's 'whys' and 'wherefores', about the balance he keeps between maintaining his private truths and unveiling himself without inner qualms. But that is not the prevailing characteristic since it is we who give life to that unstable voyeurism of the libidinous eye. The woman's body, regardless of its exciting forms, confirms that NATURAL NATURE is an escalating exchange between the viewer and the other, the only one that complements us, leaving our instinct intact and our reason elastic. Civilization remains, at bottom, a constructive dialectic between parts that want to amalgamate,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acutely diverse, in partial conflict, and arrive from dis-homogenous distances. It may seem impossible to portray a WOMAN with coloured sands and soils, rough materials on the opposite end of vertiginous physicality. And yet it works. The impasto softens and captures the regenerative virtue of the body and the inner eye.

CLOUDS

These landscapes demonstrate the artist's determined abstraction, a radical predisposition towards the mysticism of evocative forms of nature. The clouds glide through the sky like patches of frenetic paint, silky and fluffy in some places, chaotic where an impalpable force requires sudden density. These are the artist's most indefinable works, those where his eyes look upwards, into the deep forests of the soul, and into the mystery that surrounds the apotheosis of nature. Painting becomes a form of extended SACRAL ENERGY, a malleable balm that allows mystical leaps, impossible dreams, Pindaric flights within the physical gravity of the living. MC confirms here the eclectic rhythm of his figurative painting, marking out an ambiguous border between concrete shapes and growing abstraction – the world as an object of subjective interpretation; vision as an instrument to interpret the world in a subjective form. Painting becomes the symptom of the age in which the vision is born. The paintbrush, on the other hand, turns into something dense, a kind of thermometer that pierces things and then moves along the surface of the iconographical record. Clouds dissolve by nature, and yet painting can make them immobile, eternal within the synthesis of the figurative power – a mark of the limitations and of how to overcome them through the poetry of vision and the emotions of thought.

LANDSCAPES

Using soils and sands taken from the places portrayed, mixing in colours and pigments to make impasto depictions of the landscapes he has chosen to paint, MC's long-range vision looks to the places he has been to in his travels, flashbacks to his first-hand glimpses of evocative beaches, jagged coastlines, harsh mainlands and islands, mountains and hills that breathe life into his painting with passionate gestures. There is no impact of steel or concrete in the landscapes he has chosen. On the contrary, NATURAL NATURE comes to life through the emotions inspired by a CHROMATIC ATMOSPHERE that leads us through pleasant spaces, outside the city, far away from motorways and one-way systems. MC's world is flattened out in colour so as to open itself up to the deep roots of memories, to the MAGNETS OF SILENCE that recall the absolute power of things. The landscapes magnetize us and present us with true, though unknown geographical areas, impressive and yet as fleeting as the flash of other people's cameras. You only have to browse through his works to feel that all these places can be found in some area of our DNA. We are not sure exactly where they are: sometimes we recognize a place we have been to. But here again, as always for MENTAL PAINTING, the crux of the matter is the emotional visibility of the images.

PASTA & CO.

Here the dish contains more than just pasta. It contains the SUBSTANCE OF MEMORY. Plates of pasta are thus raised to a princely and solemn rank. The object of the fetish is found at the centre, in a dish containing maccheroni and other pasta shapes with a perspective that puts water in one's mouth. Pasta with a Mediterranean flavour becomes an outright ICON. And it recreates a culinary

journey where irony boosts the visual dimension, enhancing the pop extravagance of a type of painting that remains matter-based, dirty, and extremely enrooted in the moral ground of the artist. MC makes huge images of pasta: "Pasta alla Checca", "Pasta al Sugo", "Cacio e Pepe" or "Pasta alle Gemme". He plays truly with the widespread cult of excellent eating, highlighting the elementary perfection of taking minimum ingredients and putting them together to make good food. Food becomes an ICON, a lofty and solemn icon relocated generously to the centre stage. It suggests to us that all that was needed was to force the rhetoric of contemporary genres, the spirit of mediatic contamination, and the cultural borders between ups and downs. If we look back on the past twenty years, we see several perspectives from which to view the objects of ordinary life. MC has "simply" done this, bringing the privileged values of daily life to the universal value of the pictorial image.

PORTRAITS

In this cycle, close-ups or head and shoulders views have been chosen as the poses that most adequately convey the artist's moral intentions. We see friends and acquaintances of MC, real faces that tell a story with equally sincere looks and manners. You can perceive the artist's honest attention to human inter-relationships, to the exchange of looks that he transforms into painting without any scenic effects or inventions. MC's portrait painting does not go in for sugary tones but is based on a literally carnal matter. It is striking how every genre, including portrait painting, is subject to the mark of stylistic and conceptual choices. Living materials create unexpected harmony between those diversities that nature alone can approach and alternate. As with his clouds or roses, the portraits are also painted, unthinkably, with the very substance of the natural landscape. What is more, the huge amount of works for every cycle is evidence of a veritable productive concept. He reinvents the same image over and over again, using new formats, new supports, and new materials. It is thus a vision that is multiplied in his works, in his banners, in his objects of basic design, and in his video walls (where televised content challenges the imagination with elements that we never see in programs).

ROSES

A wondrous flower, symbol of the universal cult of human passion, and mystery-filled object that charms and perfumes: The Rose remains the emotional archetype in floral nature, the most intriguing and complex of bulbs in common usage. Its colours, firstly, are the primary shades with which we define nature itself. This brings us, in fact, to the biological mechanism to which the nine cycles belong, a synonym of visible life and added mystery, of a continuous flow and a series of unfathomable contents. Red stands for "revolutionary", as permeates all the works, conferring on the painting the meaning of a radical PASSION FOR LIFE, for intense feelings, for love as a primary *raison d'être*. The Rose wraps itself around the frames and the canvases, climbing out of the picture like a monochrome body, stratifying its membranes with solid lumps of impasto. It becomes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thematic prism, the timeless symbol of an obsessive and radical project, both sentimental and coherent. The artist's powers of communication are the result of a direct and never distorted vision, in the same way that every work reveals itself without artifice. In the end, we understand that there exists no utopia in terms of vision since dreams already circulate in the veins of the obvious.

VEGETABLES

MC's obsession with fruit and vegetables catalyses the deep significance of his entire project. Artichokes, lemons, bunches of grapes, chilli peppers, tomatoes: these are the raw materials of which we most frequently see versions. These are not fluke choices, but archetypes of Italian food, living symbols of a cuisine that is unparalleled in the world. The artichoke as a refined vegetable with an unmistakable flavour, the lemon as a real citrus fruit of the Mediterranean heat, the grape as the sound of the countryside from which wine is born, the chilli pepper as a basic euphorising condiment, the tomato as the magnetic heart of pasta. There is more risk of becoming rhetorical in painting these vegetables than in the simple fruition of their pictorial being. We should watch them closely without saying anything else, turn them over in our hands, and put them on the table to study them deeply, not so much so as to understand their biological history but because within those shapes is enclosed the art of good living. Life remains superior to any history of art, beating any emulation that imitates the universal force of genetic reproduction. MC reaffirms this in every work, in every colour and impasto, in every apparent repetition. The world in a lemon or an artichoke. The world like a lemon or an artichoke. A question of perspectives and objectives, one could say. A question of THE WAY WE SEE THINGS, one could say...

약력

마시모 카탈라니는 1960년 4월 2일 로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문방구 겸 책방에서 책, 크레용, 그림 봇과 함께 보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는 건축 학부에 입학을 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여행, 드서, 경험 축적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1988년에 졸업을 했고 이듬해에 로마의 건축가 명부에 오르게 되었다. 졸업 논문에서 이미 그는 회화, 일체감 표현, 촉조술의 혼합인 임파스토 재료를 두껍게 칠하기]의 실험을 시작하였다. 학위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는 이미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첫 그룹 전시회에서 그는 예술계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불손한" 주제들을 선보였는데, 서양호박 로마 아티초크, 선인장을 걸들인 파스타 요리 접시들과 헐리 폐페 3부작이 그것이었다. Roma&Arte에서 가졌던 첫 개인전 "Natura Picta"에서 그는 단순한 주제들을 의외의 재료들을 통해 생동감 있는 색채로 그려낸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로 그는 매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1993년에는 마파아의 미술관 폭격에 대한 화답으로 암탉을 그리기 시작했다. 1995년에 로마의 Polititico에서 가진 전시회에서 그는 "이 땅을 본다 Vedo Terra"를 보여주었는데, 천연 흙만을 써서 만든 바다의 이미지들이었다. 1996년 발리첼라의 산타마리아 성당에서는 '이 땅을 느낀다 Sento Terra'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일반인 및 시각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전시회(로마 시의회와 Caritas 주최)로서 "Legge del Filo d'Oro" 단체가 후원했다. 1997 제네바의 Nota Bene 갤러리에서 "Woman, Just Part of Her" 전시회를 가졌다. 이것은 여성의 신체에만 오로지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였다. 1998년과 1999년에는 "비디오 벽(Video Wall)"을 세웠는데, TV가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TV 스크린과 유사한 것들로 구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 값어치 없는 물건, 이를테면 레몬, 파란 배경 속의 양파 한 쪽을 같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000년 브뤼셀의 Arhus 갤러리에서는 방대한 작품 모음을 전시했다. 이어서 뉴욕의 PescePalla-Tribeca 갤러리에서는 'L.I.F.E'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가졌다. 이탈리아의 비전을 음식 그림들을 통해 보여준 것이었다. 그 해 8월에는 세계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로마의 SS. Quattro Incoronati의 회랑에서 "설스러운 상징들 Simboli Sacri"이라는 전시회를 가졌다. 빵 한 조각, 포도주 조금,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가 그 상징들이었는데 모두 거대하게 그렸다. 2001년 로마의 Studio d'Arte Campaiola에서는 "HPEB", 다시 말해 "넌 예뻐지는 게 두렵니 Hai Paura di Essere Bella?"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했다. 이것은 장미에 또 다른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시도였는데, 회화 전반에 나타난 아름다움의 표상에 대한 것이었다. 2002년에는 나무를 하나 그렸는데, 9월 11일의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그림이었다. 그 이후부터 그는 건축, 설스러운 하늘의 내재성 등을 포함한 새로운 주제들에 대한 전시회를 해 오고 있다.

Biography

Massimo Catalani was born in Rome on 2 April 1960. He spent his childhood among books, crayons and paintbrushes in his mother's stationery and bookshop. After finishing high school he enrolled in the faculty of Architecture. He then began a period of travelling, reading, and experience-gaining. He graduated in 1988 and the following year registered on the roll of Architects in Rome. In his thesis he had already begun experimenting with impastos that were a mixture of painting, modelling and architectural masonry. He was preparing for a research degree when he decided to make his debut as an artist. In his first group exhibition, he presented subjects that were "irreverent" not only for the world of art but also for the public: plates of pasta with zucchini, roman artichokes, prickly pears and chili pepper triptychs. In his first one-man show "Natura Picta" at Roma&Arte, he showed vividly coloured paintings of simple subjects using surprising materials. Since then, every year or two, he has embarked on a new project. In 1993, in response to mafia bombings in museums, he began to paint hens. In 1995, he held an exhibition at the Polititico in Roma, presenting "Vedo Terra" [I See Earth], images of the sea made using only natural soils. In 1996, in S. Marla in Vallicella, he presented "Sento Terra" [I Hear/Feel Earth], an exhibition for the seeing and non-seeing (under the aegis of the Rome city council and Caritas) in support of the "Legge del Filo d'Oro" organisation. In 1997, at Nota Bene in Geneva, he inaugurated "Woman, Just Part of Her", a project focused entirely on the feminine body. In 1998 and 1999, he created his Video Walls, composing analogies of television screens showing what television cannot show, namely the beauty of an object that has no price, a lemon, say, or a bunch of onions set against a blue background. In 2000, he presented a vast anthology at the Arhus gallery in Brussels. Later, in the PescePalla-Tribeca gallery in New York, he held a show entitled 'L.I.F.E', a vision of Italy through paintings of its food. For World Youth Day in August of that year he gave an exhibition at the Cloister of SS. Quattro Incoronati in Rome, called "Simboli Sacri", or sacred symbols: a loaf of bread, some wine and two fish, all of colossal dimensions. In 2001, the Studio d'Arte Campaiola in Rome showed "HPEB", in other words, "Hai Paura di Essere Bella?" [Are you afraid of being beautiful?] a project in which he sets out to attribute to roses a further symbolic value, that of representing the beauty of painting in general. In 2002, he painted a tree, which he donated to the victims of 11 September. Since then he has been working on exhibitions on new themes including Architecture, the Immanence of the Sacred and Celestial Space.



"BdR a Milano"

"밀라노 BdR"

255X189 (cm)



"Bruxelles parole folles"

"브뤼셀 parole folles"

91X127(cm)



"Grande zucca"
"큰 호박"
168X184(cm)



"Rigatoni al pomodoro"
"리가토니 알 포모도로"
84X61(cm)



"Cumulo"
"적운"
84X125(cm)



"Cumulo"
"적운"
244X185(cm)



"Rosa baccarat"
"장미 바카라"
125X125(cm)



"Trionfo dei fiori di zucca"
"호박꽃들의 승리"
189X189(cm)



"RM, Palazzo dei congressi"
"로마 팔라초 데이 콘그레씨"
63X62(cm)



"Grappolo di pomodori"

"토마토 송이"

183X183(cm)



Massimo Catalani



Italian Cultural Institute

140-88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73-2
에라빌딩 4층
TEL:02-796-0634
FAX:02-798-2664



GALERIE PICI

135-10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2-22
122-22 CHUNG DAM DONG, KANGNAM GU,
SEOUL 135-100 KOREA.
TEL.02-547-9569